

# 지성과 쇄신 불교계 희망 밝아진 한 해

## 올해의 불교계 10대 뉴스

다사다난 했던 2011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본지는 한 해동안 불교계는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10대 뉴스를 선정해 2011년을 정리해보았다. 2011년 불교계에서는 원로 스님들을 비롯한 큰 법이 유난히 많이 진 반면 정치, 문화계에서 불교계의 새로운 인물들이 각광받으며 그 위상을 한껏 높인 한 해였다.

### 1. 대장경 천년 맞아 국민 결의로

2011년은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경상남도과 해인사가 9월 23일~11월 6일 개최한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 축전'은 불교문화의 지력을 통해 불교 위상을 드높인 성과를 거뒀다. 대장경 축전에 참여한 이틀만 220만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1인 1경관 인연맺기 운동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우리문화살리기 운동에 사용돼 의미를 더했다.

### 2. 정부 전통문화 인식 미흡에 5대 결사

2011년의 새해는 5대 결사 선언을 통한 자성과 쇄신으로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26일 담화문을 통해 '조계종 5대 결사'를 선언했다. 정부 여당이 전통사찰 보수와 방제예산, 템플스테이 예산, 4대강관련법안 등을 날치기 처리한 직후다. 조계종은 정부 여당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종정 법전 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전반에서 지지표명을 이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정성과 지속성이 전제돼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조계종은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를 병행하는 한편 5대결사 진행을 위한 대토론회를 매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3. 불교사회단체 결집, 화쟁위 발족

자정과 쇄신을 향한 의지는 화쟁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졌다.

조계종은 6월 8일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도법 스님을 필두로 성태용 교수(건국대)가 기획위원장, 박경준(동국대) 조성택(고려대) 이찬수(강남대) 교수 등 다양한 교계 안 밖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어 화쟁위를 비롯한 종교평화위원회,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을 합쳐 결사추진본부가 탄생한다.

### 4. 조계종 제13대 종정 진제 스님 추대

2011년은 조계종 최고 어른이자 정신적 지도자인 종정 스님이 8년 만에 새로이 추대된

한해였다.

1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조계종 종정추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종정으로 추대된 동화사 조실 법원당 진제 스님은 "종단의 화합 등을 위해 이관사관 양면의 대중들의 공의를 수렴해 조계종 본체인 간화선을 널리 퍼는데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제 스님은 1998년과 2000년 무차선대법회, 2009년 백고좌대법회를 비롯한 수많은 간화선 법회를 연 간화선 대중장이다.

### 5. 승려노후복지 시행

출가수행자가 노후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승려노후복지 제도가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4월 '승려복지법'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지난 9월 8일 승려노후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승려복지회'와 의료비·요양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의료급여지급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2011년 종단 특별회계로 승려노후복지기금 10억6000만원을 책정한데 이어 2012년에도 13억4000만원이 책정 예정으로 첫 수급자로 묘희의 대원 스님이 선정됐다.

승려노후복지제도는 보건의료분야와 수행연금분야, 수행거주분야로 나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보건의료분야만 우선적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수행연금분야는 2014년 4월 1일 시행되며, 수행거주분야는 각 교구본사별로 승려노후복지시설을 건립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 6. 세계 석학들 한국불교 배워

2011년은 세계석학들이 한국의 선수행과 불교문화를 배우고 발전을 위한 담론을 이어간 한해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개최한 8월 20~21일 개최한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포럼'에는 세계적인 불교학자 30여 명이 참여해 불교학계의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과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 등 국내외 학자 29명이 참가해 토론을 벌이고 총 15편의 간화선 연구논문도 발표했다.

특히 참가 학자들은 학술포럼에 앞서 백담사에서 닷새 동안 간화선 수행을 실감했으며 석종사와 봉암사, 동화사를 차례로 방문해 진제 스님 등과 대담을 진행했다. 또 천태종 종조인 상월 원각 조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11월 12~13일 열린 국제학술포럼의 '미래세계와 불교'에서는 폴 해리스 스펀퍼드대학 교수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오른쪽)이 화성 묘희원에 요양중인 대원 스님(가운데)에게 조계종 첫 승려요양비를 전달하고 있다.

이안 해리스 런던 예술대학 교수, 레오나르드 스왈더 템플 대학 교수(미국 필라델피아) 등 세계 석학 15명을 비롯한 국내외 학자 32명이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학술포럼은 전체 6개 세션으로 나뉘어 금강대 대강당과 중강당에서 진행됐는데 총산 논산이란 지리적 한계에도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대중이 운집해 불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 7. 문화재 환수, 활발함

2011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실크로드와 동향' 특별전은 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찾은 성황을 이뤘다. 특히 프랑스 국립박물관이 소장 중이던 <왕오천축국전>의 전시는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올린 신호탄이었다. 이는 5월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는 외교장각 도서 297권의 반환과 12월 일본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왕실의계 반환으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설립 50주년을 맞아 특별전 개최 등 문화재 홍보 행사를 개최해 전통문화 전승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였다.

### 8. 10대 비구니 회장 명우 스님

조계종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명우 스님이 선출됐다. 10월 17일 치러진 신임 전국비구니회장 선거는 조계종 사상 첫 직선으로 치러져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선거 전부터 후보인 명우 스님과 윤달 스님은 공약을 제시하며 비구니계 발전에 비전을 제시하며 안팎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첫 직선이 치러진 선거당일 혼잡한 가운데서도 양 후보들이 선거에 승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불교 역사에 선례를 남겼다.

명우 스님은 1366명 가운데 765표를 얻었으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달 스님을 지지

했던 모든 스님들에게도 다가갈 것으로 윤달 스님 공약도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 9. 큰 스님 연이어 입적, 대중사 품서

조계종 원로인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도선사 회주 혜정 스님, 비구니계의 큰별 봉녕사승가대학장 묘연 스님이 잇달아 입적했다. 큰 스님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하며 그 유훈을 잇기를 서원했다. 조계종은 큰 스님들의 입적이 잇따르자 11월 24일 3년 만에 대중사(大宗師) 법계(法階) 품서식을 병행했다.

새로운 대중사는 동국대 불교대학장을 지낸 인환 스님과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전 중앙종회 의장 월탄 스님, 전 총무원 부원장 암도 스님을 비롯해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전 관음사 주지 종하 스님, 고운사 조실 근일 스님이다.

한편, 폐암 투병 중이던 환경보살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장도 5월 15일 별세해 불교계에 안타까움을 더했다.

### 10. 법륜 스님 안철수 멘토로 주목

불교계 외적으로는 법륜 스님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교수의 멘토로 주목받았다.

청춘 콘서트에서 안철수 박경철 등과 대화소통의 무대를 선보여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스님은 기존 즉문즉답으로 청중들의 공감대를 전폭적으로 이끌어냈다.

법륜 스님은 오래전부터 남북평화문제와 국제적인 기아해결, 문맹퇴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약한 인물로 즉문즉답은 3050의 중장년 세대를 위한 법회형식의 일문일답 무대로 102회 기록을 세웠다.

2002년에 해외구호활동과 대북지원업적 등으로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고 만해상, 청암상 얼마 전에는 통일대상을 수상했다.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⑩

## 무왕과 선화공주를 되살린 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益山 彌勒寺址 石塔)  
국보 제11호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을 위한 7년간의 해체 작업 중 탑의 중심부에서 유리구슬과 진주 등 수천 점의 국보급 유물들이 쏟아졌다.

유물들 중 학계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단연 미륵사 장건에 관한 기록이 적힌 금제사리봉안기였다.

사리봉안기에는 서동이 백제의 왕이 되고서 선화공주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지었다는 '서동설화'의 사실 여부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다.

서동설화의 주인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기존의 통설인 서동 '무왕설'을 뒤엎는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됐다. 풀리지 않는 서동설화의 미스터리, 진짜 서동은 누구일까.

그러나 이번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에서 나온 금제 사리봉안기는 다른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 "백제 왕후가 좌평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善因)을 심어"라는 구절이 발

견된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 건립 주체였던 왕비가 신라 선화 공주가 아니라 백제 최고 관직인 좌평(佐平)의 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택'은 당시 백제 8대 귀족 가문 성(姓) 중 하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왕과 선화 공주 이야기를 완전히 허구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구절이 판독자에 따라서는 "백제 왕후와 사택적덕의 딸"로 읽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당시 무왕이 왕후를 둘 이상 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화 공주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금제 사리봉안기 기록 때문에 '무왕과 선화 공주' 설화는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됐다.

## 박구원 만평



# 종립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부대중들께 호소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종립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사부대중들께 두 손 모아 고합니다.

지금 동국대학교 당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미래지향적 학문구조개편안은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교육적이고 반불교적인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종립 동국대학교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몇 가지 평가 잣대를 앞세워 30년이 넘는 전통과 역사를 가진 우리 윤리문화학과를 폐지하려는 시도에 글자 그대로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진정으로 동국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겉치레와 세속의 상찬만을 추구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여느 대학들이 앞 다투어 걸모양을 부풀리고 뽐낼 때 오히려 동국대학교는 대학 본연의 자세가 과연 무엇인지를 되물어보고 사바세계의 혼탁함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할 불교인재들을 길러 내는데 힘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32년 동안 우리 윤리문화학과는 금전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버린 험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능률한 동량들을 배출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윤리문화학과 학생들이 세속적 자기이익만을 추구했다면 어찌 차디찬 길바닥에 꿰어앉아 108배를 울리며 학과를 지켜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참다운 학문을 배우겠다는 서원을 가슴에 품고 학과 존속을 기원하는 학생들을 폭력적이라고 매도하며 마치 철거민을 내팽개치듯 짓밟아 몰아내는 학교 당국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가늠 길이 없습니다. 감히 청하옵건대 동국대학교를 아끼시는 사부대중들께서는 동국대학교가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윤리문화학과 폐지안을 당장 철회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 합장의 예를 올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는 유지·발전시켜야 합니다.
- 반교육적이고 반불교적인 학문구조개편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리라운드의 시대적 요청을 거부하는 학교 당국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총동문회 일동 두 손 모음